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뉴스레터

# KOSCA LETTER



2023 Vol.37

| KOSCA MESSAGE

| KOSCA NEWS

| KOSCA INFO

| KOSCA TODAY

| KOSCA TOGETHER





# 계단식 설계를 통한 공간활용의 정수

좁은 면적과 경사로에  
창의적인 설계와 조경,  
조명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이란  
이런 것임을  
보여준다.



표지이야기 엄궁동 MTC  
(2022 부산다운 건축상 동상 수상작)

##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KOSCALETTER Vol.37

- |        |                      |
|--------|----------------------|
| 발행인    | 회장 김세원               |
| 기고/투고  | kosca21@kosca.or.kr  |
| 편집/발행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
| 디자인/제작 | CCA (051. 647. 5991) |
| 사진제공   | CCA                  |





# Contents

## KOSCA MESSAGE

- 04 권두사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박대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삼종

## KOSCA NEWS

- 06 협회 소식
- 10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KOSCA INFO

- 12 전문건설인의 삶 건삶인 제71호 - (주)일진아이앤씨 대표이사 강병식  
건삶인 제72호 - 남우산업개발(주) 대표이사 황규진
- 16 건설산업정보 Part 01 - 법령개정  
Part 02 - 회원사안내
- 32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34 특별기고 기행문 흥산건설(주) 대표이사 신상기
- 38 특별기고 세무칼럼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 40 특허 및 신기술 소개 2023년 2/4분기 신기술 현황
- 41 그것이 알고 싶다 하도급 분쟁 해법

## KOSCA TODAY

- 42 회원사 현황
- 45 협회·조합 소식 KOSCA 중앙회·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부산사회 2023년 3/4분기 주요일정 안내
- 46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태풍 호우 대비 사고예방 안전조치
- 48 2023년 건설업 교육

## KOSCA TOGETHER

- 49 오늘의 트렌드 경험을 소비하는 공간의 힘 팝업 스토어
- 50 부산의 명소 해운대수목원
- 51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웨다곤 파고다
- 52 소통하는 문화공간 힐링 무비, 힐링 북
- 54 글로벌 이슈 따뜻한 자본주의 경영을 향해 ESG
- 55 슬기로운 생활 꿀팁 쉽게 알아보는 '만 나이 통일법'
- 56 하루 5분 건강습관, 건강음식
- 58 독자와 함께 회원사 참여 마당(독자의견 및 퀴즈)

엄궁동 MTC  
(2022 부산다운 건축상 동상 수상작)



2023 Vol.37



부산시민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부산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부산시의회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박대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국민의힘, 북구 1)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2,300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자재비 인상 등 건설 환경은 악화되고, 금리 인상 등 어려운 여건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시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삶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문건설업 회원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에서 2023년 전국 건설 수주 규모는 정부 SOC 예산 감소, 기준금리 급등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약 7.5% 감소한 206.8조 원, 건설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0.1% 증가한 258.85조 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부산시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건설 수주액은 1조 5,77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8% 증가하였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부산시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건축·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부산을 건설하기 위해 공공공사 조기 발주와 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중소건설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하도급률을 제고하여 중소건설기업 수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 실태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 지역제한 입찰 제도 시행,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약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는 민생경제를 회생하고, 시정 현안 해결을 견인하고, 부산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일 잘하는 의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년간 부산의 역사를 바꿀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등을 힘있게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시의회는 부산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국가적 대형사업뿐만 아니라 시민행복과 시민복지와 바로 연결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늘 귀담아 들겠습니다.

부산시의 건설산업 발전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가 더욱 발전하고 건승하도록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소통과 협업으로 적정공사비 확보와  
수주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 삼 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코로나19 팬데믹, 건설공사비 급상승, 안전 관련 규제의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어느 때보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면서도 지역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위기를 헤쳐 나가는 전문건설인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원수의 90% 이상을 수질오염과 사고에 취약한 낙동강 하류에서 취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고도정수처리 과정과 엄격한 수질 관리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조류의 대량 증식과 갈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 유입 등의 수질문제가 대두되면서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본부는 취수구에 조류 차단막 설치, 살수장치 가동 등으로 조류 유입을 막고, 고효율 응집제 사용, 여과지 역세척 주기 단축 및 중염소 투입시설 설치 등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하여 운영할 뿐만 아니라 오존설비 등 노후한 시설 개선으로 취수원 수질 악화에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간접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배수지 확충사업과 비상 대비 간선관로 이중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2032년까지 총 5,359억 원을 투자해 전체 상수도 공급망 8,534km 중 30년 넘게 사용했거나 사용수명이 도래한 431km는 4단계 상수도관 정비공사를, 10년 이상 사용 중인 3,096km는 세척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 세대만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멀리 내다보고 수돗물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을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상수도사업 공사는 전문건설업 분야로서 전문건설인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기술력으로 부산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사업본부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소통과 협업으로 적정공사비 확보와 수주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의 수돗물 브랜드 “순수365” 이름처럼 365일 부산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문건설인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회의 및 행사

### 01 2023년도 건설현장 안전지원 및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4월 4일(11:30 / 서면 이리스웨딩홀 14층) 2,300여 부산전문건설인들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2023년도 건설현장의 안전지원」과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부산광역시회 임원 및 대표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매년 황령산 봉수대에서 개최해 오던 건설안전지원제를 대신하여 개최된 이번 결의대회는 단순한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전문건설업계가 침체되어 있는 부산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노력하자는 다짐과 함께, 최근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산전문건설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담긴 결의대회를 함께 개최함으로써 의미를 더했다.



### 02 제30회 부산·광주 대표회원 합동연수회

우리협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와 광주시회(회장 박병철)는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일본 대마도에서 양 시회 대표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부산·광주광역시회 대표회원 합동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1993년부터 자매의 연을 맺고 있는 광주의 귀한 형제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우호를 다지는 30번째 부산·광주 합동연수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함께 모색하고, 공동번영을 모색해 가는 뜻 깊은 자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광주시회 박병철 회장은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부산시회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양 시회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다지고 긴밀한 협력관계로 나아가 양 시회와 회원사 모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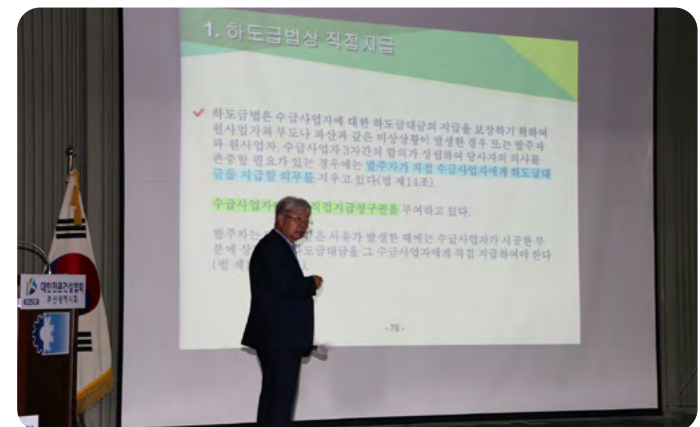


### 03 하도급 법령·건설분쟁 대응 강습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6월 16일(14:00 /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각종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건설분쟁 대응능력을 기르고자 「하도급 법령·건설분쟁 대응 강습회」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 교육에서는 기본적인 하도급법령에 대한 내용 설명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각종 회원사의 애로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공사대금 직접지급,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 추정 등에 대해 길기관 변호사가 열정있는 강의를 진행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회원사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부산시회는 이날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사를 위해 교육교재와 강의 동영상상을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에 게재해 회원사들이 수시로 활용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04 2023년 해외문화유산 탐방 실시**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회원사 대표 및 임원 등 총 51명이 참가한 가운데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7박 9일간 미서부 3대 도시인 샌프란시스코, 라스베이거스, LA 및 6대 캐년(그랜드캐년, 자이언캐년, 모뉴먼트캐년 등)을 둘러보고 그 곳의 문화를 체험하는 해외문화유산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해외문화유산 탐방단은 1937년 완공된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와 요세미티 국립공원, 사막 위에 건립된 라스베이거스, 콜로라도담 등을 둘러보면서 서부 개척시대의 미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해외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건설기술 등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건축기술의 중요성 및 건설인의 역할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회원사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한 단합의 장을 마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회원사 수주지원 및 업역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01 2023년 상반기 하도급 홍보 세일즈단 건설대기업 본사 방문**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4월 21일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합동으로 롯데건설(주) 본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부산사회와 부산시 하도급관리팀은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롯데건설(주)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부산 센텀웨이브 시티 조성공사」 및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 등 대형공사에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및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협조 요청했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롯데건설(주)는 협회와 부산시가 타 사·도와 달리 지속적으로 본사까지 방문해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에 적극 노력하는 만큼, 우수한 부산 전문건설업체를 발굴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02 부산 강소전문 건설산업 역량강화(scale up) 사전 워크숍**

부산사회(김세원 회장)는 6월 7일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부산 강소전문 건설산업 역량강화(Scale Up) 참여업체 사전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

부산의 유망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부산 강소전문 건설산업 역량강화(Scale Up)사업」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8년부터 부산시 예산을 반영한 사업으로 2023년 올해는 7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업종별 기업역량 및 경영영체제 수준진단, 진단결과를 기반으로 한 기업 체질개선 및 대응역량 강화,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맞춤형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사전 워크숍에서는 참여업체에 대한 컨설팅 세부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일정 안내 및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 03 2023년 건설업무 관계자 민·관 합동 워크숍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6월 23일(14:00 / 부산 아시아드시티 2층 제우홀) 부산지역 16개 구·군청, 공사·공단,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등 부산지역 20여 발주기관의 계약·공사감독·건설행정 담당공무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무관계자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실시공을 전담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연간 단계계약 공사를 비롯한 3억5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 등에 전문건설업체 참여를 우선 배려하여 줄 것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참여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설업무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광역시 배성희 건설행정과장은 “부산경제 발전을 위해 부산시와 구·군 등 발주기관, 그리고 협회가 상호 협력해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건설산업 제도 및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발주기준」에 대한 부산사회 한종석 사무처장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건설행정과의 「부산 건설산업 활성화 주요시책 설명」, 외부강사의 「건축과 예술로 만나는 스페인」 소양교육을 진행했다.



### 04 2023년 상반기 부산지역 대형건설현장 방문 조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동27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부산지역 내 6개 대형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대금지급 적정여부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를 확인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지역업체 하도급 및 지역자재·장비 참여현황 점검과 함께 부산 전문건설업체가 70%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종별 우수 전문건설업체 명단이 필요할 경우 협회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했다.



## 회원소식

### 01 2023년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안내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대표이사 최상대



홍산건설(주) 대표이사 신상기

부산사회 회원사인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최상대 대표이사와 홍산건설(주) 신상기 대표이사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건설인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회장동정

01 2023 전문건설 스케일UP 비전 포럼 참석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중앙회에서 6월 13일 개최한 「2023 전문건설 스케일UP 비전 포럼」에 부산사회 소속 대의원들과 함께 참석했다.

“함께 만드는 큰 전문건설, 전문건설이 만드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비전 포럼은 전문건설의 생존과 성장 해법을 찾는 소중한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비전 포럼을 주최한 중앙회 윤학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비전 포럼은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마주한 위기와 관련하여 궁극적인 해법 제시를 통해 글로벌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전문건설업계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성장 비전’을 통한 공존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 말하며, “우리 전문건설인들에게는 ‘희망’과 ‘함께’라는 성장 비전이 있기에 이번 비전 포럼을 통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02 삼지건설(주) 사무실 이전 개소식 참석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6월 27일 부산사회 회원사인 삼지건설(주)(회장 이소영, 대표이사 이태원) 사무실 이전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에 신사옥 “에코테라스”를 직접 완공하고 이전하게 된 삼지건설(주)는 부산 전문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중견건설사로서 신뢰와 신용을 바탕으로 건설시공에 앞장서며, 지역 건설산업은 물론 전국에서 시공능력을 인정받는 전문건설사로 인정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세원 회장은 축사를 통해 “신뢰와 신용을 바탕으로 삼지건설(주)을 부산을 벗어나 전국에서 인정하는 건설사로 성장시킨 이소영 회장님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장학재단 설립 등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전문건설인들의 모범이 되는 자랑스런 전문건설사이기에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이 함께하길 기원한다.” 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03 부산사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KNN 캠페인 동참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부산광역시에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부산경남 대표 방송사인 KNN을 통한 유치캠페인에 동참하여,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14일간 공중파 캠페인을 벌였다.

43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와 50만 4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면,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생산체계 개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부산전문건설업계에도 경기 회복과 건설산업 활성화의 전환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된다. 오는 11월 유치가 확정되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사업비와 인프라구축을 위한 도로, 교량 등 지원시설비 등에 약 5조 원의 투자가 예상된다.





## 수주지원

### 01 단가계약공사(1개월 이상) 건강·연금보험료 등 반영 추진

부산시회는 5월 8일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를 단가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줄 것을 부산광역시 및 산하 자치단체 등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에 건의했다.

부산지역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단가계약 공사는 여러 개의 공사현장이 존재하고, 각 현장별 시공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이유로 관행상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아 건설업체가 이에 대한 각종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회는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에 4대 사회보험 적용 대상 공사는 계약의 종류가 단가계약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여지가 없고, 전체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보험료 반영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부산광역시 및 산하 자치단체 등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에 각종 보험료 반영을 준수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 02 하도급 불공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건설관련 법령 준수 협조 추진

####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공공 발주자의 법령 준수 철저 협조

부산시회는 5월 18일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발주기관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발주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하도급 불공정행위 사전 예방을 통한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 점검 철저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추진했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확인
- 하도급 통보시 부당특약 유형 점검 의무
- 설계변경 내용 하수급인 통보 및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확인
-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원칙적 금지 홍보 등

### 03 부산 산업단지 분양(입주)업체 정보 수집 및 산업단지 내 건설공사에 부산 전문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 확대 추진

부산시회는 5월 22일 부산지역 민간공사에 대한 부산 전문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5개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분양(입주)업체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는 2016년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서 부산 산업단지 지역 민간공사에 부산 전문건설사업자가 70%이상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승인 허가 조건에 이를 권장하고 분양(입주)업체 정보를 건설관련단체에 제공토록 심의·의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산업단지별 분양(입주)업체 276개사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내 사무실, 공장 등의 신축, 개·보수, 리모델링 등의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부산 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 04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접수시 구조물해체·비계 공사업 등록여부 확인 추진

#### 건축물 철거(해체)는 구조물해체·비계 공사업체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 해체 전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동 건축물의 해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를 업무영역으로 하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업자(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 일반사업자)들이 빈번하게 수행하고 있어 적법하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업무영역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며, 건축물 해체공사 시 무등록 시공에 대한 우리협회 회원사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1,5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나, 최근 광주 학동 참사에서 드러나듯 건축물의 해체시 발생될 수 있는 인명·재산적 손실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실정임에 따라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전문성을 가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고 부산시회는 강조했다.

이에 부산시회는 6월 4일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청 건축과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신고)서 및 해체계획서 접수·검토 시 건축물 해체를 수행하는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을 통한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했다.

더불어, 해당 구(군)청 관내 건설업 무등록 시공자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현장점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05

**지역주택조합 및 가로주택정비조합「공동주택 정비사업」 부산 전문건설사업자 70%이상 하도급 참여 확대 추진**

부산시회는 5월 30일 부산지역 27개 지역주택조합 및 26개 가로주택정비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정비사업에 부산 전문건설사업자가 70%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준수를 협조 요청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부산 전문건설사업자가 부산지역 건설공사에 70%이상 하도급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시공 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 확대는 낙수효과로 부산지역 생산 자재구매와 지역장비 우선임차, 부산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는 만큼 각 조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또한, 부산시회는 부산광역시(건설행정과, 도시정비과, 주택정책과)에도 부산 전문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 확대 및 조례 이행 협조를 추진한 결과, 부산광역시에서는 각 구·군청 건축과에 지역주택조합 및 가로주택정비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시 「부산지역 하도급 70%이상 도급 가능업체」로 제한 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부산 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06

**「가덕신공항 건설공사」 부산 전문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 확대 추진**

부산시회는 6월 12일 부산광역시 공항기획과를 방문하여 「가덕신공항 건설공사」에 부산전문건설사업자가 70%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 참여 확대를 협조 요청했다.

특히, 가덕신공항 건설공사는 영남지역의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종합건설사업자 참여 비율만큼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 비율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부산광역시(공항기획과)와 시공사, 협회간 3자 업무협약을 통해 시공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실태점검 및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07

**부산산업단지지원시스템(분양(입주)업체 정보) 적극 활용 안내**

부산시회는 6월 22일 회원사가 부산지역 산업단지 분양(입주)업체의 공장, 사무실 등의 건설공사에도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분양(입주)업체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산산업단지지원시스템」 조회 방법을 안내했다.

※ 산업단지 분양(입주)업체 정보는 부산산업단지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bici.bepa.kr>) 접속 → 부산산업단지정보 → 산단별 입주 기업 정보 또는 입주기업체 검색을 클릭하여 조회 가능하다. (개별 입주업체의 건설공사 착공시기 등은 홈페이지에서 조회된 관리기관 및 해당 입주업체로 문의)

**제도개선**

01

**건설근로자 임금 직불 및 하도급대금지급 방법 개선 건의**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는 외상매출채권(B2B)을 현금화하기 위한 금융기관 대출 수수료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어음 할인율(연 7.5%) 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하도급에 참여하는 부산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한 대출 수수료 부담으로 기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하도급자의 회사 신용도 또한 몇 단계가 저평가되어 각종 보증서 발급에도 수수료가 상승함으로써 전문건설업 영위마저 위태한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4월 17일 건설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이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근로자 노임은 근로자에게 최대한 직접 지급 될 수 있도록 하여 유동성이 확보된 전문건설업체들이 성실시공으로 보답할 수 있는 상부상조의 건설문화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건설인

## (주)일진아이앤씨 대표이사 강병식



첫인상이 강렬하다.

70대를 바라보는 나이라고 믿기  
지 않을 정도로 몸이 튼실하다.

팔근육에도 핏줄이 꿈틀거린다.

아하! 그렇구나. 그는 ‘마라톤의  
사나이’였다.

강병식(68) (주)일진 I&C대표는 고향 합천에서 어린 시절 마라톤 선수 생활을 했다. 면 대표와 군 대표선수로 뛰었다. “42.195km 풀코스를 완주하다 보면 무아지경에 들어요.”

그에게 군 생활은 소중한 추억거리다. 군은 그의 건장한 체격과 체력에 반해 진해로 차출해 교육했다. 교장상을 받는 등 특출한 교육성적을 거둔 그는 최전방 사단에 배속됐고, 포병대에 차출됐는데 장교를 비롯한 부대 지휘관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일 년에 두 차례 고되기로 악명 높은 유격 훈련을 자원할 정도로 모범적이었던데다 그의 특기인 달리기로 부대의 명성을 떨쳤기 때문.

“군 대회에 나갔다 하면 1등을 도맡아 돼지 2마리를 타오니 그럴 만도 했죠. 대회가 열리는 날은 부대 회식의 날이었거든요.”

제대 후 그는 부산 국제시장의 장식업체(한일장식)에 취업했다. 새벽 5시에 출근해 자정에 퇴근했던 고된 나날이었다. 아침 일찍 여사장의 장애인 아들을 등교시켜주고, 밤에는 늦게까지 남아 남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기술을 혼자 연마하는 주경야독(晝耕夜讀)의 생활을 이어갔다. “무거운 장판을 메고 가서 직접 시공했습니다. 피아노를 어깨에 짊어진 채 장판을 깔았어요. 당구장 카펫 장식은 워낙 많이 해서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였죠.” 그를 눈여겨본 사장은 당시 월급 25만 원에 10만 원을 더 얹어서 줬다.

하지만 강 대표에게는 ‘꿈’이 있었다. 사장에게 “5년만 있겠다”고 선언한 그대로 실천했다. 사장이 다른 사람의 봉급 2배를 주겠다고 불잡았고, 심지어 아내를 소개시켜주는 미인계(?)까지 동원했지만 그의 강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대연동에 터를 잡은 그는 본격적으로 건삶인의 삶을 일궈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남천동 지역은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사는 부촌이었다. 사업은 날개를 달았다. 워낙 성실한데다 서비스를 잘해주는 바람에 입소문이 났고 공사비에 10%를 보너스로 주는 일도 흔치 않았다. ‘어디서든 남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경험칙을 그는 자연스레 습득했다.

한일장식 근무 당시 벽지 거래를 하며 알았던 대기업 간부 등 인맥의 힘도 컸다.

10여 년 전 화재로 유명세를 탔던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아파트를 기억하시는지. 바로 그 호화아파트 인테리어를 마무리한 이가 강대표다.

건축과 인테리어 사이에 엇박자가 나는 바람에 건물준공 허가를 받지 못해 난관에 봉착하자, 우신건설측이 그에게 엄청난 보수를 약속하며 매달렸다. 그가 진두지휘하면서 타일과 목공사 등 인테리어 문제가 하나씩 깔끔하게 해결됐고 마침내 무사히 공사를 마쳤다. 위기를 넘긴 우신측은 당초 약속과 달리 그의 기대에 어긋난 보수를 건넸다고 한다.

하지만 강 대표에겐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공사가 그에게 큰 보람을 줬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다들 못한다며 손 놓고 있던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이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였다. “주위에서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해냈느냐고 비결을 묻더라고요. 성실하게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공사하면서 발주업체와 단 한 차례도 시비 붙은 적이 없다.

시쳇말로 ‘더해줬으면 더했지 빼먹은 게 없다’는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

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에서 파라다이스 그룹이 짓던 주거용 오피스텔 공사에 참여한 그는 철저하고도 완벽한 시공력을 자랑했다. “화장실 문 하나 비뚤어진 게 1년 내 하자의 전부였으니까요.”

그에겐 아예 부도 경험이 없다. 100억 원 짜리 공사를 하려면 그만큼 현금을 들고 할 정도로 대비가 철저하다.

의리도 깊다. 직원이 독립해 나가 사업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슴없이 보증을 서줄 정도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그는 부산시체육회 근대5종 부회장을 맡기도 했고, 지금은 한 번씩 고향에 가서 사업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사업 경험을 전해준다.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자식 농사도 풍년이다. 아들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딸은 항공기 승무원이란다.

그에게 마라톤이란 ‘마음을 비우는 운동’이다. 무아지경에 빠져 풀코스를 뛰고 나면 몸에 있는 독소가 모조리 빠져나온다고 했다.

그렇다. 먼 거리를 달리고 난 뒤 머릿속은 백지와 같을 테다. 온몸은 땀범벅이 되고,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탈진된 상태다. 하지만 내면은 환희로 가득 찬다. 몸은 고목처럼 무겁지만 모든 독소를 비워낸 마음은 새털처럼 가볍다.

그의 말을 듣고 나니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은 늙음이 아니라 녹스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쁜 피와 나쁜 생각으로 쌓인 독성을 비워내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의 길이 아닐까 싶다.

글 최원열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건설인

## 남우산업개발(주) 대표이사 **황규진**



“

거친 풍파를 겪으며 자수성가한 ‘노가다’ 스타일이 아닌 듯하다.

사무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맞는 황규진(59) 남우산업개발(주) 대표. 점잖고 부드러운 인상을 풍긴다. 거친 풍파를 겪으며 자수성가한 ‘노가다’ 스타일이 아닌 듯하다.

부산 초량동에서 태어나 창원에서 생활하다 다시 부산으로 유턴했으니 토박이나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역시나 그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성장했다. 첫발을 내디딘 가족 회사는 신동원건설로 당시 도급 순위가 전국 톱클래스에 들 정도로 대단했다.

황 대표는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했지만 자칫 건설인이 되지 못할 뻔 했다. 중학교 시절부터 대학까지 단짝이던 친구가 마진이 큰 리바이스 청바지와 선글래스 수입판매 사업을 하자고 적극 권유했다. 그때만 해도 리바이스의 인기는 단연 넘버원이었다.

그 친구는 중1 때 미국에서 귀국한 대기업 간부 아들로 영어를 잘 했던데다 아버지가 판로를 뚫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사업 성공을 자신했었다.

‘이거다!’ 싶어 6개월의 준비를 착착 진행했고, 어머니에게 부탁해 1천만 원의 사업자금도 마련했던 터라 성공 예감을 즐기고 있던 차에 아뵘새! 아버지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당장 불려가 호통을 들어야 했다. “집안 회사에는 나오지 않고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을 하는 것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

황 대표의 건실한 생활은 1990년 2월 그렇게 시작됐다. 성격이 내성적이라 ‘노가다’ 기질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들어선 길이니 고치리라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었다. 못 먹던 보신탄도 동료들과 함께 땀을 닦으며 먹었고, 술도 원샷을 마다하지 않았다. ‘내가 소중한 만큼 당신도 존중하다’는 경험칙을 쌓아나갔다. 견적 관리 등 기본업무를 5개월간 익힌 그는 마침내 현장에 투입됐다.

고되고 힘든 현장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꺾이지 않았다. 왕복 2차선을 4차선으로 넓히는 김해공항로 확장공사가 그 첫 시험대였다. 연약지만 공사를 2년 넘게 매일 새벽 구서동에서 출퇴근하면서 무려 3번이나 경찰서에 붙잡혀가는 수모를 당했다. 한 번은 김영삼 야당 대표가 내려왔을 때 차량통행을 막았는데 교통통제 시간을 10분이나 넘기는 바람에 경찰 신세를 져야 했다.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시절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이겨냈다. 얼마나 바빴던지 결혼을 앞둔 부인과의 데이트를 김해공항에서 해야 할 정도였다. 창원에 있던 그녀는 버스를 타고 와서 그를 만났단다. 하지만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했듯이 그는 고생한 보상을 맞았다. “공사 이익이 쏠쏠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돈맛을 본 거다.

양산 ~ 구포 고속도로 공사에서 그는 총 6개 공구의 절반을 따낸 동부건설의 하청을 받아 도로포장 현장소장으로 나섰다. 젊은 혈기로 눈코 뜰 새 없이 뛰어다녔다. 공사가 끝난 뒤 그의 차를 폐차시킬 정도였으니 오죽했을까. 꼼꼼하게 공사한 결과 도로포장 테스트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다. “그 공사로 승진된 동부건설 책임자가 부르더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더군요. 그날 희식 한 번 거창하게 했죠.” 이런 일도 있었다. 평택에 쌍용차(무쏘)공장을 짓기 위한 택지 조성 포장공사에 2년 반을 현장소장으로 일했다. 하루는 아내에게서 출산 임박 소식을 듣고는 부랴부랴 본사에 휴가를 청했지만 일인지하에 거절당했다. “저 때문에 제때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위약금을 책임지겠느냐고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렇게 노가다 체질이 된 그는 마침내 2009년 독립한다. 처음에는 복민건설이라는 이름이었지만 공사 낙찰이 되지 않아 남우산업개발로 바꿨다고. “사명을 변경하고 회사를 옮겼더니 희한하게도 운이 풀리더군요.”

코로나 시절 계약했던 대규모 공사를 발주처에서 취소하는 바람에 큰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그간 벌어들인 돈으로 겨우 버텼다. 다행히 5년 전 시설물유지보수 면허를 취득한 게 큰 도움이 됐다.

그는 과거 신동원건설에서 근무하다 자신을 따라와 준 직원 2명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다. 사업을 바꿔볼까 고민도 했으나 이들의 장래를 걱정해 생각을 접었다. 수년 후 회사를 물려줄 구상도 하고 있다.

그의 인생 좌우명이자 사업철학은 ‘상대방을 존중하자’이다. 나만 생각해서는 절대 생존할 수 없다는 게 그의 믿음이다. 사람 인(人)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며 믿는 데서 생긴 말이 아니던가. 이해를 뜻하는 영어 단어 ‘understand’도 ‘아래에 서서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남과의 비교에 능한 한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용기’가 아닐까 싶다. 더불어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완벽주의란 자만이나 오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맥아더 장군이 말했다. ‘보스는 가라고 말하지만, 리더는 가자고 말한다’. 인디언 속담에 이르기를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고 했다.

황 대표가 소통에 힘쓰려고 노력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가자’는 정신이 필요한 지금이 아닐까 한다.

황 대표는 달라이라마가 말한 리더십 비결을 마음에 새긴다. ‘나는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만 본다. 하나는 그의 장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한다’.

글 최원열





# 01

## 지방계약법 개정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부당특약 무효화 및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낙찰 배제 등이 반영된 지방계약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2023.4.11.) 하였다.

### 지방계약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19332호】

#### 01 주요내용

- 부당특약 금지 및 부당특약 무효화 (제6조제1항 개정 및 동조제3항 신설)
- 100억원 미만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시 낙찰 배제 (제13조제4항 신설)
- 부당특약사항의 이의신청 대상 추가 (제34조제1항제2호 개정)
- 이의신청기간 연장 (제34조제2항,제3항,제4항 개정)
  - 이의신청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 20일 이내, 그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 15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15일 이내에 심사 및 조치, 그 결과 신청인에게 통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시 15일 이내 →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 청구 가능

#### 02 시행일 : 2023. 7. 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0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의 확대 적용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56호(2023.5.9.)】

#### 01 주요내용

- 등록기준 특례 확대적용
  - 1회 ⇒ 1개 업종
  - ※ 2개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1개 업종의 등록증을 반납한 후 다시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등록기준 특례 적용
  - ※ 자본금, 기술능력 모두 적용
- 건설업의 기술능력 등록 요건 완화
  -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
  - ※ 차후 건설업 관리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내용 보완될 예정임.

●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 요건 현실화**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 시행일 : 2023. 8. 10.

※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존업체는 2023.12.31.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 **건설업 등록기준 상 장비 요건 현실화**

- 등록기준 상 장비 중 철도안전법, 건설기계관리법, 선박안전법에 의거하여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쳐야 함

※ 기존업체는 2024. 5. 10. 전까지 검사를 마쳐야 함.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명칭 변경**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명칭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변경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 불법 하도급 및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

02 **시행일** : 2023. 5. 9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03

##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특례 적용 안내

우리협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개선을 통한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숙련 외국인근로자(E-9)의 재입국 기간을 단축하는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를 건설업에도 적용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01 **주요내용**

- (기존) 외국인근로자(건설업 제외)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 경과시 출국 의무 및 출국 후 6개월 경과시 재입국·취업 허용

(개선) 건설업 외국인근로자도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4의 요건(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근무,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등) 및 잔여 공사기간 6개월 이상 요건(복수현장 합산)을 충족하는 경우 출국 후 1개월 경과시 재입국·취업 허용

02 **시행일** : 2023. 5. 15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4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01 주요내용

- 위험성평가의 정의 재규정 및 평가방법 다양화
- 위험성평가의 평가시기(최초,정기,수시) 명확화
-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

### 02 시행일 : 2023. 5. 22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5

##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내

지방공기업과의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를 신설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13일 공포, 12월 14일 시행 예정이다.

###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 신설]

### 01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에 이의 제기 가능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불이익을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은 15일 이내 심사 조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이의신청 불복 시 20일 이내 지방계약분쟁조정위에 재심 청구 가능)
- 지방계약분쟁조정위는 재심 청구 안건 심사·조정 후 50일 이내 신청인과 지방공기업에 통보

### 02 시행일 : 2023. 12. 14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6

**국가계약 예규 개정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01 주요내용**

- 계약금액이 변경되지 않은 계약내용 변경시에도 하수급인에 통보 의무화(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2)  
- 계약변경에 대해 하수급인이 적기 대응 가능
- 설계서 등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시로 개선(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 입찰업체에게 충분한 서류 검토시간 제공
- 종합심사제 동점자 처리기준(최저가격 입찰자 → 균형가격근접자) 확대 : 간이중심제 → 일반중심제로 확대(300억이상)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4.2나)  
- 저가입찰 개선 및 하도급공사비 증액 기대
- 중심제 하도급계획서를 낙찰 예정자만 제출하도록 개선(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7조)  
- 종합심사제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하도급계획서 제출 → 낙찰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 제출(1회에 한하여 보완 허용)

**02 시행일자 : 2023. 6. 30 입찰공고분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예규·지침·고사·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 01

##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안내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에 소재한 사업자 등의 각종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들이 숙지해야 할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령에 대한 교육자료를 홍보하고 있어 부산시회는 4월17일 회원사에 동 교육자료를 안내했다.

### 01 주요내용

#### •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 위반 금액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 • 연동 계약 및 단가 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 사유 추가

- 연동 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인상 실적을 평가하여 각각 최고 1점 및 2.5점까지 벌점을 경감

#### •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확대

- 기존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게 되

#### •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를 하도급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

####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 기간,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도급법이 개정

#### • 공공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그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거래 경쟁입찰시 입찰금액, 낙찰자 및 낙찰금액, 유찰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도급법이 개정

### 02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및 문의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051-460-1041)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2

##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건설일드림넷) 안내

부산시회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중인 건설근로자 구인·구직 플랫폼 「건설일드림넷」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01 주요내용

- 사업소개 : 건설현장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일자리 알선

※ 실시간 취업알선 진행과정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건설현장 취업 또는 채용을 희망하는 누구나

- 지원내용

- 직종·지역·급여 등 다양한 조건으로 건설현장 구인·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알선
- 실시간으로 취업알선 진행과정 확인 가능한 신속한 정보 전달
-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와 필요에 따라 동행면접 지원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 02 이용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cw.or.kr/cid](http://www.cw.or.kr/cid)) 또는 모바일 앱
- 오프라인 전국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대표전화 1666-1829)

※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3

##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설치 건설현장 점검 철저

부산사회는 여름철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타워크레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설치 건설 현장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회원사에 당부했다.

### 01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점검항목

- 인·허가 적정성
  - 건설기계 등록 여부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여부
  -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 정기검사 실시 여부
- 타워크레인 유지·관리
  - 마스트 및 지브 변형상태 여부(타워크레인 상부)
  - 와이어로프 손상 여부(타워크레인 상부)
  - 핀 볼트 체결상태 여부(타워크레인 상부)
  - 제동드럼, 진동기, 브레이크 상태 여부(타워크레인 상부)
  - 방호장치 정상작동 여부(타워크레인 상부)
  - 전기판넬 상태(타워크레인 상부)
  - 시브 상태 여부(타워크레인 상부)
  - 유압장치 상태 여부(타워크레인 상부)
  - 조종장치 상태 여부(타워크레인 상부)
  - 혹 해지장치 부착 여부
  - 기초부 관리 상태
  - 브레이싱 관리 상태
  - 기타 부대시설 및 매뉴얼 확인

※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4

## 2023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단가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다음과 같이 확정·공고하였다.

**01 제정목적**

-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02 적용일시 : 2023. 5. 1 부터**

**03 적용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04 2023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현황**

계	토목	건축	기계	구조물
1,666	730	372	289	275

• 구성내용

- 제1장 총칙
- 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 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 제5장 BIM설계 적용 구조물 표준시장단가
- 제6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05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031-995-0900)**

\*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5

## 건설현장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 및 납부 안내

부산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현장에서의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 및 사업장 가입에 대하여 안내하며, 회원사는 필히 숙지하여 각종 보험료 소급 추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01 건설현장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

•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공단적용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공단업무처리기준

• 대상범위

구분	건설 일용근로자 가입대상
건강보험	월 8일 이상 근로
국민연금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소득 220만원 이상

**02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 **사업장 분리적용이란?**

- “건설현장”은 “건설업 본사”와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 필수
- 건설현장 사업장 분리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장단위별 8일 미만 근로자 신고예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본사 기준으로 적용되어 현장별 근로일수가 합산되어 보험료 납부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 **사업장 분리적용 요건(①, ②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공사계약기간 1개월 이상
- ② 계약서에 사후정산내용 포함 또는 도급(하도급)산출 내역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반영

• **신고방법**

-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관련서류 제출 (방문, 우편, FAX 등)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li> <li>②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li> <li>③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li> <li>④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및 산출내역서 보험료 반영 여부 확인)</li> </ul>

• **유의사항**

- 건설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원천징수 반드시 필요
  -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 ※ 국민연금(보수월액의 4.5%), 건강보험(보수월액의 3.545%)
  - 근로자의 원천징수 거부로 인한 대납은 업체 부담 증가
  - 근로자 인식개선과 사회보험의 취지를 고려하여 철저한 인력관리와 근로자 협조 유도를 통해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 필요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요구 및 착공시 사업장 적용신고
  - 도급(하도급)계약 시 계약조건에 보험료(연금·건강) 사후정산 내용을 포함하거나 산출내역서에 보험료(연금·건강) 항목을 반드시 명기하고 정당하게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계상 요구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27~30일 등)인 경우라면 가급적 1개월 이상으로 계약 권장
  - 공단은 당해현장 준공전까지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급적 공사착공과 함께 반드시 사업장 적용 신고

# 06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의무 점검 강화에 따른  
사전조치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1조(건설기술인 현장배치 및 확인)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당해 공사의 공중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시행령 별표5)에 따라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단, 동일지역 또는 인접한 지역의 공사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각각 5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 현장별 발주자의 승낙을 모두 받아 1인의 건설기술인이 최대 2개의 공사현장까지 중복하여 배치 가능.

그러나 최근 부산광역시 감사실 주도하에 실시한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결과, 해당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하도급공사에 건설기술자의 삼중·사중 배치가 적발되어 건설현장의 안전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회는 5월17일 소속 회원사가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자 이중 배치 등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벌금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건설현장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위반자에 대한 제재**

- 행정처분(건설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7호 및 동법 제82조제1항제5호(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한 건설사업자) : 시정명령 ⇒ 시정명령에 불응 한때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 행정형벌(건설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제4호(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건설사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2호(건설공사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7

### 「건설업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슬로건」 활용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인식 제고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위험성평가 활성화 슬로건을 공모하였다.

이에 부산시회는 공모 슬로건을 회원사 건설현장에서 현장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현수막, 스티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01 목적

- 정부 국정과제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확산의 일환으로, 국내 건설사에서 선도하는 위험성평가 확산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도모하고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및 사고사망 감축 유도

#### 02 주요 활용 방법

- 건설현장 내·외부 등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활성화 슬로건' 설치·노출
  - (설치 대상) 건설현장 내·외부 현수막, 스티커, 가설시설물, 안전펜스 및 기타 안전용품 등 제작·발주 시 슬로건 및 메시지 노출
  - (활용 방법) 별첨 슬로건을 기초로 용도(스티커, 현수막 등)에 맞게 다양한 형식(문구 등 조합)으로 활용 추진

#### 03 세부내용

- 현수막, 스티커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참조



## 08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 콘텐츠 목록 안내

우리협회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1.10.13)을 통하여 안전정보 제공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매주 관련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건설·시설 안전 및 안전산업과 관련 정보를 회원사에 안내하며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매월 안내드리는 안전 콘텐츠는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9

### 중소기업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안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건설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플러스」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기업의 세제혜택 등을 제공한다.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6개월 이상 재직자

이에, 부산시회는 전문건설업체의 인력수급 및 안정적 현장운영을 지원코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회원사에 안내했다.

#### 01 내일채움공제 가입혜택 주요내용

- **세제혜택**
  - 중소기업기여금(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 인정
  - 중소기업기여금(납입금)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 감면 등
- **교육·복지 혜택**
  -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 온라인이러닝 교육
  - 기술분야 집합연수 무료 교육
  -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지원
  - 단체상해보험
  - 휴가비 지원
  - 농어촌마을 체험 가족연수 무료 제공
  - 종합건강검진 무료 제공
  - 온라인복지몰
  - 공제계약 대출
- **정부 지원사업 우대**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 우대
  -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점 부여 사업

#### 02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1588-6259)

※ 홈페이지 : [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

※ 관련 리플렛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0

## 하절기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 자료 안내

하절기 기온상승으로 오·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저류조, 하수관거 등 환기가 불충분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유기물 부패로 인한 황화수소 중독 및 산소결핍 질식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산시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를 다음과 같이 회원사에 안내했다.

### 01 홍보 자료명

- 하절기 유기물 부패 질식재해 발생위험 주의 안내문
-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 안내문
- 맨홀 정화조 작업시 안전보건수칙 준수 현수막
- 질식재해 전화한통으로 예방하세요 현수막

### 02 「원-콜(One-Call) 무상 서비스」 (☎1644-8595)

- 장비대여(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 유해가스농도측정
- 안전교육
- 기술지도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1

## 2023년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생 모집 안내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도모 및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 등 다양한 건설기능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하반기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어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01 교육과정 : 건축목공, 공조냉동, 용접, 전기설비, 배관, 공조냉동 에너지관리 등

### 02 교육기간 : 2023년 6월 ~ (과정별 순차개강)

### 03 모집기간 : 2022년 6월 ~ (상시 모집)

### 04 교육대상 : 실업자, 구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고교·대학 졸업(예정)자 등

### 05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99-1(덕천동), 한국폴리텍대학 내]

### 06 교육혜택

- 훈련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지원 등

### 07 접수 및 문의사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051-330-8100~2)으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http://busancte.or.kr>) 참고

# 12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주의 안내

국토교통부는 현재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집중단속('23. 8.30까지)을 실시하고 있으며 6.8일 기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508개 중 77개 현장을 단속하였고, 그 중 33개 현장에서 58건(42개사)의 불법하도급(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발주자 서면승낙 없는 재하도급)을 적발하여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8.30일까지 계속하여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부산시회는 6월26일, 회원사에게 집중 현장단속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갖출 것을 당부하였으며, 집중단속의 주요 적발 사례를 안내하였다.

아울러, 해당공종 무자격 업체, 재하도급 등의 불법하도급 해당 여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시회 (☎051-633-0260)또는 중앙회 건설산업팀(☎ 02-3284-1022 ~ 23, 107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3

## 공동주택 하자분쟁소송 증가에 따른 입증책임 준비 철저 안내

최근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소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시공사는 하도급 시공분의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무리하게 보수를 요구하거나 자체 하자보수 후 하도급사(전문건설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6월 26일 공동주택 집단하자분쟁 소송으로 인해 하도급공사에 참여한 우리 회원사에서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보수관련 주요 점검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하자보수 관련 주요 점검사항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제공한 자재의 불량여부(불량자재 확인시 즉시 통보)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작업지시가 하자발생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하자 발생 우려 사항 통보)
- ※ 상기 사항 발주자 또는 수급인 통보시 입증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발송, 통보 확인서 징구 등 필요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제공한 설계도·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적법 시공 여부 및 관련서류 보존
- 하도급공사 준공에 따른 준공검사 서류 일체 보존
- 하자보수기간 종료 전·후 시공 목적물에 대한 증빙 사진, 입주주체 등에 대한 확인서 징구 등
- 하자보수 요청시 하자보수 기간 내 발생된 하자여부 확인
- 사용상의 훼손·파손 등으로 인한 부당한 하자보수 여부 확인

### 02 기타사항

- 시공사의 구상권 청구시 상기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회신



# 14

## 건설현장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안내

정부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추진에 따라 '23. 7. 1부터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부산시회는 관련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회원사에 안내했다.

### 01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 前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 \* (전속성)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
  - \*\* (플랫폼 종사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느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총 18개 직종)

직종	적용확대 내용	직종	적용확대 내용
1.보험설계사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10. (후원)방문판매원	-
2. 건설기계조종사	—	11.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3. 방문강사	-	12.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4. 골프장 캐디	-	13. 건설현장 화물차주 (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신규
5. 택배기사	설치(택배) 기사	14. 화물차주	모든 영업용 화물차주 (특정품목·산업구분 폐지)
6. 퀵서비스기사	모든 퀵서비스기사	15. 소프트웨어기술자	-
7. 대출모집인		16. 방과후학교강사/유치원·어린이집강사	신규
8. 신용카드 모집인	제휴 모집인	17. 관광통역안내사	신규
9. 대리운전 기사	모든 대리운전기사, 탁송기사, 대리주차원	18.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신규

### 02 보험가입자 (사업주)

-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
-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가 건설업에 노무제공 시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5

##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 및 불법하도급 단속 주의 안내

우리협회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판단기준 등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 중(23. 8.30까지)임에 따라 부산시회는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유형 및 처분수준을 다음과 같이 회원사에 안내하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01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익명)

- 우리협회 중앙회 및 시·도회 홈페이지 배너(온라인 신고) 개설  
※ 링크 : <https://www.kosca.or.kr/public/ET/ET980103.asp>
- 운영 : 상시 신고 및 접수 즉시 국토교통부 전달 예정

### 02 불법하도급 유형 및 처분수준

- 불법하도급 유형 :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소규모 하도급, 상호시장 하도급 등
- 행정처분 :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6

## 기업재해경감 우수 기업 인증제도 및 지원사업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상이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기업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이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우수기업 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사업과 연계하여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우수기업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01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사업

- 신청기간 : 2023년 6월말 ~ 7월말 (지역청 별로 일정 다름)
- 지원대상 :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지원내용 : 일반바우처 사업(컨설팅)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바우처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
- 바우처 지원금액 : 기업당 1천5백만원 이내
- 바우처 서비스 분야 : 경영기술전략,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규제대응, 안전보건(재해경감) 등

### 02 인센티브 제도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을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7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제도 안내

우리협회는 한국표준협회와 `23. 5.11(목)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정보 교류 및 상호협력하고 있다.

우리협회 정회원은 한국표준협회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신청 시, 우리협회 회원증을 함께 제출하면 인증심사 신청비 면제 및 ISO 인증(최초/전환) 심사비용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안내서와 신청서 등을 다음과 같이 회원사에 안내했다.

- 01 **인 증 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 02 **혜 택** : 인증 심사 신청비 면제, 인증(최초/전환) 심사비용 20% 할인
- 03 **제출서류** : 인증심사 신청서, 우리협회 회원증
- 04 **문 의** : 02-6240-4671, promiseyyj@ksa.or.kr(한국표준협회 윤여진 위원)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8

## 2023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공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신청한 업체 중 전 전년도 대비 전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고용평가 등급이 공시되었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sc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1 **공시대상**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업체 중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 우수업체
- 02 **공시일자** : 인증 심사 신청비 면제, 인증(최초/전환) 심사비용 20% 할인
- 03 **평가결과** :

고용평가등급	등급배분기준
1등급	상위 30%미만
2등급	상위 30%이상부터 상위 70%미만
3등급	상위 70%이상

※ 고용평가점수가 음의 수인 경우 등급산정에서 제외. 단, 전년도 고용평가점수가 1이상인 업체는 점수 상관없이 1등급 부여

- 04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지역, 사업자등록번호, 평가등급
- 05 **공시장소** : 대한전문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sc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함.



# 19

## 2022년말 기준 전문 건설업 경영상태 평균 비율 공시 안내

건설공사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할 2022년도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이 공시되었다.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다음과 같다.

### 01 전문건설업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분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습식·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물	철콘
부채비율	58.91%	78.23%	80.30%	61.67%	88.50%	64.96%
유동비율	215.12%	164.72%	145.82%	191.05%	128.72%	203.98%

구분	구조물해체비계	상하수도	철도궤도	철강구조물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부채비율	65.57%	54.04%	165.00%	135.12%	131.47%	92.12%
유동비율	152.46%	232.56%	124.04%	124.86%	138.85%	106.31%

※ 적용기간 : 2023. 7. 1 ~ 2024. 6. 30일 입찰공고분 까지 적용

### 02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경영상태 평균비율(종합공사 입찰용)

부채비율	유동비율
103.27%	140.31%

※ 적용기간 : 2023. 7. 1 ~ 2024. 6. 30일 입찰공고분 까지 적용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여부**

- Q** 1. 건설업에 대한 영업정지의 의미
- 2.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여부

- A**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 기간동안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공사의 도급계약은 물론 입찰·견적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2. 동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경우도 발주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2015. 07. 09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에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관련)**

- Q**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하는지?

- A**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그 처분의 효력이 있는 때로부터 영업을 할 수 없지만,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인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계속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9282 판결례 참조)** 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4항 및 제6항에서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으로부터 그 처분의 내용을 통지받은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까지 한 건설공사로 한정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 뒤에도 계속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건설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이기만 하면 착공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공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17-0659 회신일자2018-01-22)



## 건설판례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747, 31754(반소) 판결  
 [약속어음금등,손해배상][공1995.12.1.(1005),3756]

### Q 판시사항

- 가.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나. 수급인이 공사 중 발생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 수급인이 그 설계도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다. 공사 도중 지하수가 분출하여 감리인에게 알린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배수 조치만 취한 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그 수급인에게 설계도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 A 판결요지

- 가.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은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나. 공사의 감리인은 건축주의 지정과 의뢰에 따라 건축주를 위하여 건축시공자가 하자 없는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지식을 동원한 재량으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수급인이 공사 도중에 발생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계속한 것이라면, 가사 완성된 건물에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설계도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다. 공사 도중 지하수가 분출하여 감리인에게 알린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배수 조치만 취한 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그 수급인에게 설계도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2023년도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해외문화유산 탐방 기행문



홍산건설(주) 대표이사 신상기

2022년 가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번째 문화 탐방으로 발간 9일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2023년 미서부 해외 문화유산 탐방”을 떠났습니다. 항상 여행은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하는 순간들이 내게는 행복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장거리 여행이라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았지만,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충분히 준비하고 출발했습니다.

## < 1일차, 샌프란시스코 >

여행 첫날,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미국 건설의 자부심인 금문교와 지역 문화 체험장인 피어39를 구경하고, 베이크루즈에 탑승하여 알카트라즈 연방 감옥을 조망하는 특별한 경험을 즐겼습니다. 금문교는 미국 건설의 자부심으로 불리며, 그 아름다움과 공사의 대단함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노래에서 들던 금문교의 아름다움과 분위기를 직접 체험하며, 그 도시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이 다리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노래 속에서 느껴지는 찬란한 햇살과 감미로운 바람이 실감나는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활기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 큰 영감을 주었고, 이곳의 아름다움과 역사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귀중한 추억으로 남았으며, 저는 항상 이곳을 특별한 곳으로 기억하고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 < 2일차, 요세미티 국립공원 >

이틀째는 시차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4시간을 이동하여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저에게 평화와 아름다움을 전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 곳을 방문하면서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멋진 자연경관에 마음이 홀릴 뿐만 아니라 평온함과 안정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간에 흐르는 폭포의 물소리와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들판과 산들의 경치는 마치 푸른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요세미티 폭포는 그 아름다움에 몸과 마음이 씻겨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폭포의 떨림과 강렬한 물결 소리는 저에게 자연의 힘과 웅장함을 상기시켜 주었고, 마치 인간의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폭포 앞에 선 순간, 저는 자연과의 조화를 느끼며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또한 평화로움과 조용한 숲의 풍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나무들의 그림자가 작은 새들과 동물들의 노래와 어우러져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는 동안, 자연 속에서의 한적함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숲 속에서는 생명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 들었고, 그곳에서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한 평화로움을 선사해주었습니다.

또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자연사와 생태계의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의 방문을 통해 저는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 < 3일차, 칼리코 은광촌과 콜로라도 라플린 >

삼일차에는 영화에서 보던 장면들을 칼리코(은광촌)에서 관광했습니다. 저는 칼리코(은광촌)에서의 경험은 독특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곳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칼리코는 고온이 지속되고 척박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생명력과 미적 감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막의 열기와 건조함은 독특한 생태계와 삶의 방식을 형성하였는데, 이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도 생존하기 위한 동식물들은 다양한 적응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명한 색상과 묘한 질감을 가진 사막 식물들은 저에게 자연의 창조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 그들이 빛나는 모습은 마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칼리코는 황량하면서도 미묘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돌과 모래는 다양한 색조와 질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사막의 특유한 조명과 그림자는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이곳에서 느끼는 고요함과 잔잔한 정적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콜로라도의 카지노 도시 라플린을 경유하여 저녁으로 미국 본토 스테이크를 맛보았습니다. 식사 장소인 호텔 레스토랑 옆을 가로지르는 강이 사막을 가로질러 흐른다는 것이 특이하고 재미있었습니다.

### < 4일차, 그랜드캐년 >

네 번째 날, 드디어 그랜드캐년을 방문했습니다. 그랜드캐년은 라플린을 따라 흐르는 콜로라도 강의 급류가 만들어낸 대협곡으로, 회장님의 추천으로 경비행기 투어까지 참여하여 그랜드캐년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투어가 시작되는 순간, 제 마음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여 하늘로 떠올랐을 때, 아래로 펼쳐진 그랜드캐년의 웅장한 경치는 제 눈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랜드캐년의 심연은 저의 상상을 초월하며, 그 공간의 규모와 아름다움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경비행기에서는 그랜드캐년의 다양한 지형과 지형의 변화를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경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끝없이 펼쳐진 협곡과 강, 폭포, 바위의 형태와 색상 변화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내려다보는 그랜드캐년은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경치는 마치 환상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 < 5일차, 모뉴먼트밸리와 앤틸로프캐년 >

다섯 번째 날, 우리는 대단한 모뉴먼트밸리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모뉴먼트밸리 투어는 개조된 질차에 탑승하여 밸리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주었으며, 서부 영화에서 봤던 장면과 오버랩되며 절벽과 바위 형성물들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고, 그 아름다움에 마음이 놀랐습니다.

특히 사암의 묘한 질감과 색상,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조화는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막의 신비로움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모뉴먼트밸리는 신비롭고 매력적인 장소로 마치 양의 곱창처럼 사암이 미로처럼 얽히고 설켜 몽환적인 느낌을 주었으며, 그 색상과 질감은 정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 < 6일차, 브라이스캐년과 자이언캐년, 그리고 라스베가스 >

여섯 번째 날, 우리는 브라이스캐년과 자이언캐년을 구경한 후 라스베가스로 이동했습니다. 브라이스캐년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형상들에 의해 홀린 것 같았습니다. 이런 독특한 지형은 어떻게 자연이 만들어낸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붉은 색조의 풍경과 돋보이는 석류 모양의 바위 형성물들은 마치 세상에서 본 적 없는 환상적인 공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브라이스캐년에서의 경치는 저를 놀라게 하면서 동시에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자이언캐년은 그 이름 그대로 거대하고 웅장한 협곡입니다. 그 장관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 그 경치를 목격하며 제 마음은 완전히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협곡의 절벽에서 내려다보는 깊은 협곡과 부드럽게 흐르는 강은 그 어떤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완전히 담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이언캐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밝아지는 협곡의 풍경은 마치 환희를 느끼는 듯한 감정을 자아내었습니다.





특히 자이언캐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웅장한 협곡과 매끄러운 절벽을 목격하며 자연의 위대함에 감탄하고 여행을 즐겼습니다. 가이드님이 들려준 아름다운 음악은 감동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주었고, 이번 여행에서는 그랜드캐년, 자이언캐년, 브라이스캐년 등 미서부의 대표적 인 캐년들과 모뉴먼트밸리, 엔텔로프캐년, 홀슈밴드 등 6대 캐년을 보는 기회였습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세계 최대의 도박도시 라스베가스는 독특하고 화려한 경험을 선사하는 도시로, 그 아름다움과 활기로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대로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빛으로 장식된 호텔과 카지노들로 가득했습니다. 밤에는 수많은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도시를 밝히며 마치 꿈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화려함과 열정, 자유로움이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활기와 문화적인 다양성, 사막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이곳을 방문하며 저는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만끽하고, 새로운 에너지와 영감을 얻었습니다.

### < 7일차, 로스엔젤레스(헐리우드와 그리피스천문대) >

마지막 날, 우리는 로스엔젤레스로 이동했습니다. 로스엔젤레스 도착 후에는 헐리우드 거리를 돌아다니고 방문한 그리피스 천문대는 그리피스 공원의 넓은 공간과 그 위에 자리한 천문대의 웅장한 모습이 저를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피스 공원은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산책로와 푸른 잔디밭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합니다. 천문대는 로스엔젤레스의 도시 전망을 제공하는 독특한 장소로 환상적인 풍경을 즐겼습니다.

광활한 대륙을 몇 날 몇 일 동안 가로지르며 우리는 미국 서부를 자유롭게 탐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협회 집행부와 회원사가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미서부를 방문하며 단순히 지나쳤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과 이야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휴식과 모험, 문화와 자연이 조화로운 이 곳에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번 탐방을 직접 기획하고 세밀하게 준비해 주신 협회 김세원 회장님과 불편함 없이 챙겨주신 사무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이 여행에서 얻은 소중한 추억과 경험들은 우리의 본연의 생활에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 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이수용** 세무사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 < 건설업 양도의 포괄승계 의미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건설업 양도, 합병, 상속입니다. 이 중 영업기간과 공사실적이 승계되는 것은 “합병”, “상속”, “포괄양도하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하는 합병·합자회사의 유한·주식회사의 전환”, “포괄양도하는 분할(분할합병)” 입니다.

합병과 상속은 상법과 민법에 의해 권리의무의 승계가 포괄적으로 발생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세 가지는 반드시 포괄승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때, 포괄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해야 원하는 영업기간과 공사실적의 승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의 의미와 관련해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건설업의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

건설업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때, ‘건설업에 관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 5가지와 전문건설업 28가지의 세부 업종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는 건축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등록업종의 일부인 건축공사업만을 양도하는 것은 포괄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 2. 건설업 자본금

건설업 양도는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는바,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기업진단이며 건설사업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를 입증합니다. 이때, 양도인 또는 피승계인의 건설업 자본금과 양수인 또는 승계인의 건설업 자본금을 비교해 후자의 금액이 적다면 이는 포괄승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양수인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자본금이 양도인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자본금보다 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3. 기술자의 승계

건설업은 기술자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의 승계도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양도회사에서 퇴사처리 후 양수회사에서 입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 < 건설사업자 지위 승계와 실적 승계 >

건설업 사업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방법은 상법의 영업양도와 회사의 분할이 있으며, 또한 상법의 합병과 민법의 상속이 있습니다. 전자인 영업양도와 분할은 승계의 범위를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정할 수 있으나, 합병과 상속은 법률에 의해 포괄적으로 지위가 승계됩니다.

그렇다면 건설업을 이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기존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와 실적 승계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 1. 영업양도와 분할 의한 건설업 이전

상법의 영업양도는 영업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며, 분할은 회사의 재산을 신설회사 또는 기존 회사에 부분적으로 포괄승계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에 의해 건설사업자의 지위가 이전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이전하기 위해 상법의 절차를 준수했는지와 실적을 승계하기 위해 건산법의 조건을 충족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첫 번째 조건에 의해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이전했다 해도 두 번째의 건산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적승계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건산법은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 가.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 나. 건설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 다.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해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등 세 가지만 실적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2. 합병과 상속

합병은 상법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행위입니다. 상속은 민법에 의해 피상속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법률에 의해 이미 건설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효과가 존재하므로 건산법에서는 신고의무를 부과할 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 2023년 2/4분기 신기술 현황

지정번호 (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961 (2023.04.11.)	(주)해성기공, SK에코플랜트(주), (주)태영건설	반원형의 받침판과 분할형 덮개판으로 구성된 볼트조임식 클램프를 이용한 강관 트러스 구조물의 제작 및 시공 기술 (PG클램프 공법)	반원형 받침판과 서로 이격공간을 두고 반원형 받침판에 일측이 힌지 연결되고 타측이 볼트 연결되는 2개의 반원형 덮개판으로 구성되는 볼트조임식 클램프(PG 클램프)를 이용하여, 공장에서 강관 트러스 구조물의 상하현재에 브라켓강관을 결합하고 현장에서 브라켓강관과 웨브재의 중심축이 일치되도록 클램핑한 상태에서 반원형 덮개판 사이의 이격공간을 통해 부재간 연결부를 가용접하여 직경 600mm이하의 강관 트러스 구조물을 제작 및 시공하는 기술
962 (2023.04.27.)	(주)동아특수건설, (주)건화,(주)이산, (주)대한콘설탄트, (주)드림이앤디	다공일괄 압착기법(MSCM) 으로 제작된 압축 복합형 영구앵커 공법	SWPC7DL 강연선(2,360MPa)과 정착구를 다공일괄 압착방식으로 결합한 압착결합체와 상단부 내하체로 이루어진 압축형 앵커의 구조를 압착결합체 상하에 내하체를 분리 결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인장부 내하체와 압축부 내하체로 분리된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정착력 발현 시 하중 분산을 유도하는 기술
963 (2023.05.12.)	(주)세원방수, (주)세원에코텍, 윤재원	수계 고무아스팔트 도막재와 아스팔트계 자착형 시트재를 석유수지 성분간 재료적 일체성을 확보한 비노출 복합방수공법(O2 System)	제조 및 시공과정에서의 유기용제 사용 배제로 VOCs 저감이 가능하며, 경화형 도막층 형성으로 누유 안정성이 확보된 수계 아스팔트 도막재와 자착 특성을 갖는 시트방수재를 복합 기술로 도막방수재 및 시트방수재 제조 시 석유수지를 활용한 재료적 개량을 통해 습윤면 부착성능은 물론 복합방수층 형성 시 도막-시트에 포함된 석유수지 간 부착 유도로 이질 재료 간 일체성을 확보한 복합방수공법(Only One System : O2 System)
964 (2023.06.01.)	디엘이앤씨(주), (주)시엘에스이엔지, (주)후레씨네코리아, (주)택한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비부착 외부 포스트텐션을 이용한 기초 하중전이 기술 (PT하중전이공법)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기초와 접한 벽체에 외부 포스트텐션에 의한 긴장력을 도입하여 벽체에 작용하는 하중을 전이시킴으로써 기존 말뚝의 반력비(작용하중/허용지지력)를 조절하는 기술로서, 기초와 접하는 벽체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20MPa 이상, 정착구를 부착하는 벽체의 최소 두께가 150mm 이상, 기존 말뚝의 지지력 조절 범위가 말뚝 허용지지력의 20%(말뚝 허용 지지력 400kN/본 기준) 이내에 적용되는 비부착 외부 포스트텐션을 이용한 기초하중전이 기술

※ 출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www.kcnet.or.kr) → 신기술현황 → 지정현황(건설신기술)

**하도급 분쟁 해법**

1

**현장소장은 추가 공사  
지시 권한 있나**

A사는 B사로부터 건설하도급을 받았고, B사 현장소장의 요구로 추가 공사를 했는데, B사에서는 추가공사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원사업자인 B사의 현장소장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할 권한이 있나?

전문가 답변: 현장소장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은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자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자로서 그 업무에 관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해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자'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 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고,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 없는 새로운 수주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영업활동'은 그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추가공사가 당초 하도급받은 공사와 동일한 현장에 관한 것으로서 당초 하도급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공사가 아닌 이상, 원사업자인 B사의 현장소장에게는 추가공사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소송에서는 하도급업체인 A사에게 B사의 추가공사 지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공사 수행 중에 추가공사 지시증거(작업 지시서, 메일, 문자, 녹취 등)를 수집한 뒤,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추가공사 수행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 이학윤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2

**하도급법에 규정된  
'건설위탁' 범위**

A사는 해당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와 소방공사를 도급받은 후 B 회사에게 하도급했다. 그런데 A사는 B사에게 약정한 선급금에 갈음해 A사 소유 미분양 부동산을 양도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B사는 이를 거절하는 경우 당해 공사 및 향후 다른 공사의 수주가 어려워질 것을 염려해 이를 승낙했다. A사는 하도급법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가?

전문가 답변: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등한 지위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는데, '하도급거래'를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건설사업자가 그 업계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건설위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이 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건설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등록) 등을 마친 자여야 하고, 이러한 면허(등록)를 마치지 않은 자에 대한 하도급 거래는 예외적으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도 '전기공사업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면허를 받지 못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들을 하도급한 것은 하도급법 제2조 제9항의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하도급법 제17조 등의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면허를 보유하지 않는 A사가 B사에 하도급 한 것은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사는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도급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공사 참여 시 이런 부분을 잘 따져서 참여하고 대응하면 사업에 도움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부산 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23. 4. 1. ~ 2023. 6. 30.

진출업체 현황
대하씨엔디(주) (대표자 : 김용현, 경남)
(주)무찬 (대표자 : 김인식, 울산)
미강산업 (대표자 : 이순희, 경남)
(주)신정케이스 (대표자 : 정유호, 경남)
(주)오방건영 (대표자 : 최진록, 인천)
(주)우상건축디자인 (대표자 : 정태호, 울산)
유안건설(주) (대표자 : 유수경, 경기)
(주)현성건설 (대표자 : 이재근, 전북)
흥덕산업개발(주) (대표자 : 나광채, 경남)

전입업체 현황
(주)건녕이앤씨 (대표자 : 유대림, 광주)
(주)고운토건 (대표자 : 정민정, 경북)
(주)다송건설 (대표자 : 이형구, 경남)
대승프라임(주) (대표자 : 장승호, 광주)
디아스(주) (대표자 : 서미정, 제주)
(주)부양건설 (대표자 : 정두현, 경남)
(주)서현건설(대표자 : 박지수, 경남)
(주)선혜지 (대표자 : 박인도, 경기)
(주)아도건설 (대표자 : 김정훈, 대구)
에스디건설산업(주) (대표자 : 엄국남, 충남)
(주)에스비산업개발 (대표자 : 김종희, 경북)
에이치앤케이2건설(주) (대표자 : 곽우혁, 충남)
주상개발(주) (대표자 : 김수만, 이창주, 울산)
(주)지이오건설 (대표자 : 김태우, 경기)
케이에이치케이인더스트리(주) (대표자 : 김지영, 대구)
케이제이씨건설(주) (대표자 : 진종인, 경남)
한송엠텍스(주) (대표자 : 한기권, 경남)
(주)효원이앤씨 (대표자 : 강라희, 경기)
(주)흥덕건설 (대표자 : 나광채, 울산)



##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 현황

2023. 6. 30. 기준

지역	업체 수	등록 수
중구	29	49
동구	69	105
서구	29	35
사하구	89	131
영도구	31	44
동래구	216	262
남구	123	161
금정구	281	397

지역	업체 수	등록 수
연제구	164	239
해운대구	284	380
수영구	131	190
부산진구	172	229
북구	102	137
사상구	144	179
강서구	284	386
기장군	226	319
<b>합계</b>	<b>2,374</b>	<b>3,243</b>

**부산 전문건설업체 상호 변경 현황**

2023. 4. 1. ~ 2023. 6. 30.

변경 전	변경 후
대영시설안전(주)	미강건설산업(주)
(주)동일토건	(주)동일전력토건
(주)벽진피엔티부산	(주)정천피엔티
(주)장한건설	(주)장한이앤씨
에이제이오토파킹시스템즈(주)	(주)앱스
에이치오건설(주)	(주)현민건설산업
에이치원건설(주)	성훈건설(주)
유니온건설(주)	(주)기술나라건설
(주)인플랜플러스	(주)뉴원
평화건설(주)	케이에이치케이인더스트리(주)

**부산 전문건설업체 대표자 변경 현황**

2023. 4. 1. ~ 2023. 6. 30.

상호명	변경 전	변경 후	상호명	변경 전	변경 후
강림건설(주)	이치형	이치형,진미하	(주)스테이빌드	이상제	이현술
(주)고성관광개발	박광환	박광환,최경훈	(주)아신디앤알	전동목	전동목,임두권
구평건설(주)	양도근	강민준	(주)앱스	남궁억	조용학
굳센이엔지(주)	지원구	박제희	(주)에이비엠	한기영	한기영,김정훈
극동건설(주)	문정동,허철영	문정동,박용득	엔씨건설(주)	정광민	정광민,허경수
(주)금양이엔지	유재성	이호목	엔씨토건(주)	남기덕	박근규
(주)기술나라건설	이일구	이상휴	(주)엘에스이엔지	송기용	황금연
(주)나원	권순영	권순영,김대홍	(주)장한이앤씨	이외만	지원구
(주)남광석재	허미자	황경영	(주)재원에스앤씨건설	이운주	이지윤
(주)네스티지	박종혁	정환욱	(주)정안기술환경	임채원	문찬호
(주)다정플러스	손다수	손다수,손정도	(주)종환경디자인연구소	강석웅	강민주
(주)더원건설	윤경희	김점미	진화건설(주)	장원석	장재학
대승프라임(주)	손상운	장승호	(주)창조건설	백지현	조훈조
대진산업개발(주)	김경환	박민준	케이에이치케이인더스트리(주)	손용식	김지영
대흥조경개발(주)	박경식	박영수	(주)케이오씨	정소현	정소현,윤태삼
(주)덕재건설	김운석	김운석,이동희	태영건업	박판용	박판용,박대관
(주)동이개발	이상재	양지연	태화엘리베이터(주)	김남선	김남선,김범준
(주)동진기초	민천식	신상재	(주)혁성건설	윤대혁	윤수진
미강건설산업(주)	강순애	장선화	(주)현민건설산업	김정임,권종선	이재경
(주)비앤피건설	최경삼,오완수	오완수	(주)호연건설산업	안윤백	문정식
삼일건설(주)	김진숙	김문희	(주)힐텍	임종윤	이동훈
세아환경(주)	이원석	조경숙	희민건설(주)	정재도	정재도,김원식
(주)송덕	박성해	옥기문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23. 4. 1. ~ 2023. 6. 30.)

 <p><b>김태영</b></p> <p>가가산업개발(주) 부산 북구 금곡대로 616번길 25, 3층 T: 051-363-4604 보유업종: 금속청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p>	 <p><b>손철환</b></p> <p>경복건설(주)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1로 41, 113동 204호(대저2동, 부산티플렉스) T: 051-796-0320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p>	 <p><b>정종덕</b></p> <p>극동철거산업개발(주) 부산 금정구 두실로15번길 36 (구서동) T: 051-581-7904 보유업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p>
 <p><b>김건탁</b></p> <p>금화해양수중기술(주)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29번길 70 1층 (반송로) T: 051-545-9337 보유업종: 수중-준설공사업</p>	 <p><b>장영태</b></p> <p>대가건설산업(주) 부산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466, 3층 T: 070-8706-6299 보유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p>	 <p><b>박정태</b></p> <p>도원건설산업(주) 부산 부산진구 거제대로 88, 3층 T: 051-717-3500 보유업종: 철강구조물공사업</p>
 <p><b>강형규</b></p> <p>(주)디자인케이 부산 동래구 총령대로 294 1층 (낙민동) T: 051-903-7749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b>나영홍</b></p> <p>마지공간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8, 6층 T: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b>윤상원</b></p> <p>부산기연(유) 부산 동래구 인락동 546-11 T: 051-531-1782 보유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p>
 <p><b>반영철</b></p> <p>(주)비에이치윈 부산 동구 중앙대로 263, 1902호 국제오피스텔 T: 051-469-9907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b>박귀영</b></p> <p>성일건설(주) 부산 기장군 철마면 여락송정로 315, 2층 T: 051-864-0887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b>전미영</b></p> <p>(주)세훈건설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910 마트월드 B178호(감전동) T: 051-310-1022 보유업종: 상·하수도공사업</p>
 <p><b>박경희</b></p> <p>신진건설(주) 부산 동래구 미남로146번길 12, 3층 301호(온천동) T: 051-715-7168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p>	 <p><b>천경두</b></p> <p>(주)씨앤아트 부산 남구 수영로 26, 205호, 206호, 207호(문현동, 대림문현시티프라자) T: 051-715-0405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b>김석훈</b></p> <p>(주)아고라 부산 금정구 금샘로 475, 5층 T: 051-508-668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청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p>
 <p><b>고윤호</b></p> <p>일동건설(주)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118, 4층 T: 051-868-6285 보유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p>	 <p><b>신경희</b></p> <p>일송건설(주)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118, 3층 T: 051-802-3120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p>	 <p><b>장미옥</b></p> <p>(주)창풍 부산 동래구 명장로106번길 70-12 T: 051-523-1335 보유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p>

##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 중앙회 윤학수 회장은 6월 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학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문 종합 간 경쟁체계 불공정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존치 및 활성화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공공 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공공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전문업계 현안을 건의하고 여당 내 유력정치인으로서 일인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합리화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련 제도 개선, 적법한 교섭을 위한 노조 명단 공개, 건설현장 외국인력 합법 고용 환경 조성 등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은 “전문건설업계에 대해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자주 만나며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 중앙회 윤학수 회장은 6월 20일(주)나이스디앤비와 신용평가 관련 비용 절감,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회원사 신용평가 비용 할인 △공공기관 입찰제도 등에 대한 무료 교육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원사들이 나이스디앤비를 통해 협력업체 등록 또는 입찰에 필요한 기업신용평가 신청시 수수료 할인 및 교육 지원 등 부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 중앙회 윤학수 회장과 부산시회 김형겸·윤영갑 부회장은 4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국회의원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회 윤학수 회장은 전문-종합 상호 건설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업체의 무차별적인 전문공사 진출로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한계 등으로 실질적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개정을 통해 해당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발주를 원칙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 발의에 최인호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이에 최인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건설공사 상호시장 개방 이후 수주 불균형이 발생하는 현 실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2023. 5. 22일 허종식의원외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직접 참여하며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4월부터 조합원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김앤장 기업 법률교육’ 서비스를 개설했다.  
 조합 홈페이지에서 ‘김앤장 기업 법률교육’을 클릭한 후 조합원 인증을 하면 법률교육 서비스를 온라인 교육으로 들을 수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이 강사진으로 나선 강의 커리큘럼은 형사소송 실무로 시작으로 계약 및 회사운영 실무, 민사소송 실무, 산업 안전(중대재해법), 개인정보, 인사노무 및 직장 내 괴롭힘, 회계 및 조세, ESG, 국제거래실무 특강으로 구성됐다.

## 부산시회 2023년 3/4분기 주요일정 안내

일자	주요일정	비고
2023.08.01.(화)	2023년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2023.08.04.(금)	제57회 인정기능사 서류접수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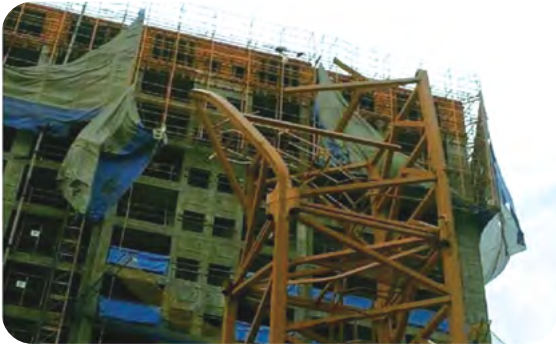
※ 상기 일정은 협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주요 안전조치 사항

### ☑ 태풍에 의한 타워크레인 전도·붕괴 사고 사진

☑ `12.9.3. (서울 관악구) 태풍 「볼라벤」



☑ `16.10.5. (부산 영도구) 태풍 「차바」



구분	주요 조치사항
전도·붕괴 위험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회 제한 브레이크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종료 후 해제 상태 확인(수동 해제 권장)</li> <li>- 무인 타워크레인은 반드시 수동으로 선회 브레이크 해제</li> <li>☞ 봄이 자유롭게 회전하게 함으로써 힘, 부러짐 방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워크레인 벽체 지지(월 브레이싱 등) 고정상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사 설명서 등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li> <li>☞ 벽체에 고정되어 붕괴 방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텔레스코픽 케이지를 최하단으로 하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게중심을 낮추어 전도 방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형) 트롤리는 최대한 내측으로 이동시킬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형) 봄은 세워 놓을 것(50도 내외)</li> </ul>
강풍에 의한 낙하 위험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링벨트, 와이어 등 줄걸이 용구 및 인양물 제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지판 등 기타 부착물 탈거 또는 고정상태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고리(후크)는 모두 감아올릴 것</li> </ul>
악천후 시 작업 제한 (안전보건규칙 제37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 및 해체작업 중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간풍속 30m/s 초과하는 바람통과 후에는 작업 개시 전 각 부위 이상 유무 점검</li> </ul>
누전, 감전 위험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력원 및 전원 차단 확인, 케이블 연결부위 절연보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워크레인 하부 판넬 조작 금지, 누수·침수 예방 조치</li> </ul>

## 태풍·호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

관련규정	세부내용
산안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140조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143조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154조 (붕괴 등의 방지)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161조 (폭풍에 의한 도괴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162조 (조립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시켜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340조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349조 (작업중지 및 피난)	① 사업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360조 (작업의 중지 등)	①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낙반·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함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재해발생위험을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등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설치장소를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378조 (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잠함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지 않도록 함
안전보건규칙 제383조 (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2023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교육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최고의 건설업 윤리 및 실무종합 교육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교육이수가 의무적이며, 영업정지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동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기간이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기에 교육이수가 권장된다.

### 2023년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 01 교육대상

- **의무교육대상: 신규건설 등록업체**
  - 6개월 이내 등기입원(대표자 포함) 중 1인 교육 이수
  - **벌칙: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제99조
- **임의교육대상: 영업정지 처분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 이수
  - **감경기준: 대표자 15일, 등기입원 1인당 5일 감경**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 02 교육내용 및 비용

- **내용:** 건설산업관련법령(건설법·하도급법·계약법), 건설품질·환경·안전관리, 윤리경영
- **시간:** 8시간 (09:00~18:00)
- **교육비용:** 집합교육 150,000원 / 이러닝교육 135,000원

#### 03 교육신청 및 결제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및 교육비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 건설교육센터 <http://edu.kosca.or.kr> (팩스 02-3284-1066)
  - **입금계좌:** 기업은행 525-001144-04053 (예금주 (사)대한전문건설협회)
- **문의:** 건설교육센터 ☎ 02-3284-1076, 1080

#### 04 2023년 온라인(이러닝)교육 일정(8-10월)

교육차수	신청마감일	학습가능 기간		수료증 발급
		부터	까지	
제31기	8.10	8.12	8.18	
제32기	8.17	8.19	8.25	
제33기	8.21	8.23	8.29	
제34기	8.24	8.26	9. 1	
제35기	8.31	9. 2	9. 8	
제36기	9. 4	9. 6	9.12	
제37기	9.14	9.16	9.22	
제38기	9.26	9.30	10. 6	
제39기	10. 5	10. 7	10.13	
제40기	10. 9	10.11	10.17	
제41기	10.12	10.14	10.20	
제42기	10.19	10.21	10.27	
제43기	10.26	10.28	11. 3	

#### 05 2023년 집합교육 일정(8-10월)

교육차수	교육일정	지역	장 소
제31기	08월 18일	대구	대구무역회관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4층 대회의실)
제32기	08월 25일	전주	전주상공회의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7층 대회의실2)
제33기	08월 29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중회의실)
제34기	09월 01일	수원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5층 중회의실)
제35기	09월 08일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 지하 1강의실)
제36기	09월 12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중회의실)
제37기	09월 22일	강릉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 106-11, 2층 대회의실)
제38기	10월 06일	제주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5층 국제회의장)
제39기	10월 13일	전주	전주상공회의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7층 대회의실2)
제40기	10월 17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중회의실)
제41기	10월 20일	대전	KT대전인재개발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60, 제2연수관 109호)
제42기	10월 27일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2층 중회의실)

# 경험을 소비하는 공간의 힘

## 팝업 스토어 pop-up store

수많은 브랜드가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요즘 시대. 다양한 브랜딩 방법 중에서도 핵심 요소로 각광받는 것이 바로 팝업 스토어다. 팝업 스토어는 독특한 비주얼과 차별화된 체험형 콘텐츠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지금은 팝업 스토어 전성시대

팝업 스토어는 브랜드의 가치와 철학을 대중에게 전하기 위해 일정기간 운영되는 체험형 매장으로 최근 엔데믹 시대가 시작되면서 더욱 급부상 중이다.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운영되기도 하는데, 식품·뷰티·의류 기업은 물론 명품 브랜드도 앞다퉈 팝업 스토어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 통신 등 사실상 분야를 가리지 않고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는 추세다.

팝업 스토어의 성지로 알려진 더현대 서울은 개점 후 2년 동안 320여 개의 팝업 스토어를 열었으며, 이 기간 방문객은 46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 시민의 절반은 더현대 서울의 팝업 스토어를 방문한 셈이다. 이에 더현대 서울은 지하 2층에서만 운영되던 팝업 스토어를 지하 1층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팝업 스토어에 열광하는 이들은 주로 MZ세대에 집중된다. 이노션 인사이트그룹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팝업 스토어에 대한 검색량은 11만 5,801건으로 전년 대비 5천 건 가까이 상승했다. 연령대별 검색량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24세가 가장 많았고, 25~29세, 13~19세, 30~34세가 다음을 이었다. MZ세대는 스스로

정보를 찾아내고 판단해 경험해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정 기간만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의 희소성이 만나 MZ세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MZ세대는 맛집 탐방을 하듯 다양한 컨셉의 팝업 스토어를 찾아 SNS에 인증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또 다른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팝업 스토어는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이색적인 즐길거리가 특징이다.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문을 연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는 침대 없는 침대 브랜드 팝업 스토어로 유명하다. 대신 유럽의 샤퀴테리 숲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공간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자아내고, 식료품점을 테마로 한 3층 규모의 건물은 다채로운 굿즈와 햄버거 매장 등으로 꾸며졌다. 문을 연 지 두 달 만에 2만5천여 명이 이곳을 찾았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보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 곳곳에서 팝업 스토어가 각축전을 벌이며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이번 주말, 숨겨진 나의 취향을 발견하고 트렌드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 도심 속 초록빛 치유의 공간 해운대수목원

나날이 녹음이 짙어지는 이 계절, 도심 속 열기를 벗어나 잠시나마 푸르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은 의외로 우리 가까이 있다. 향기로운 허브와 형형색색 야생화가 싱그러움을 뽐내는 해운대수목원으로 여유로운 산책을 떠나보자.

사진 부산관광공사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힐링공간

해운대구 석대동 일원에 드넓게 자리 잡은 해운대수목원은 지난 2021년 5월 1단계로 임시 개장(약 41만 5,000㎡)한 도심 속 쉼터다.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석대쓰레기매립장으로 운영되어 혐오시설로 여겨졌지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공립수목원으로 조성되었다. 시민의 행복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미래 세대에게 이어질 녹색문화자산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단계적 개발을 통해 오는 2025년에는 62만 8,292㎡(19만 평) 규모의 국내 최대 공립수목원으로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 푸르른 행복이 넘실넘실

해운대수목원에는 허브길, 침엽수원, 생명의 숲, 생태습지원, 새소리원, 장미원, 초식동물원 등 다양한 볼거리가 코스별로 조성되어 있다. 로즈마리, 라벤더로 눈과 코가 즐거운 허브길을 거닐다 보면 한결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침엽수원에서는 정아름송 후계목이나 낙우송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침엽수들이 사계절 푸른 감성을 잔뜩 내뿜는다. 수목원을 거닐다 보면 방목되어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다니는 귀여운 양떼를 만나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 관람카트 타고 한 바퀴

관람카트를 타고 수목원을 한 바퀴 돌면서 풍경을 감상하고 자연과 교감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하며 부산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https://reserve.busan.go.kr/>)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방문객은 총 50분의 관람시간 동안 안내소-초식동물원-허브길-장미원-새소리원(나눔정)-생명의 숲을 편하게 둘러보게 된다. 관람카트 행사 외에도 에코티어링, 핸드메이드 화분 만들기 등 계절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푸르른 추억을 선사한다.



금빛 찬란한 미얀마의 자부심

# 쉐다곤 파고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불탑으로 꼽히는 쉐다곤 파고다 (Shwedagon Pagoda)는 미얀마의 경제수도인 양곤 중심지에 위치한 대표적 랜드마크다. 불교 신자라면 일생에 한 번은 방문해야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번쩍번쩍한 황금빛과 압도적 높이를 자랑하는 만큼 위용이 대단해 미얀마인들의 자부심으로 통한다.

글 김미선

쉐다곤 파고다의 이름에서 '쉐'는 미얀마어로 '금'을, '다곤'은 '언덕'을 의미한다. 풀이하면 '금의 언덕'이라는 의미가 된다. 파고다는 단순한 불탑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쉐다곤 파고다의 경우 14만 평에 달하는 부지를 포함하는데, 그 중심에 높이 약 100m, 둘레 426m의 황금탑이 자리 잡고 있다. 탑의 기단부는 정사각형이고 윗부분은 원뿔꼴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급격히 폭이 좁아진다. 황금탑 꼭대기에는 73캐럿의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총 5,448개의 다이아몬드 외에도 루비, 사파이어, 대형 에메랄드가 박혀 있다. '티'라고 불리는 이 꼭대기 부분은 해가 뜨거나 질 무렵 주변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반짝인다.

황금탑 주변으로는 72개의 작은 탑들이 둘러싸고 있으며, 불탑 안에는 크고 작은 불상들이 안치되어 있다. 파고다 내 수많은 건축물의 천장에는 석가의 이야기들로 그려진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주변에는 보리수나무나 불교박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도 즐길 수 있다. 불탑 실내로 들어가려면 화강암 보도를 맨발로만 밟을 수 있으니 뜨거운 날씨는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 탑의 높이는 8m에 불과했지만 1362년 빈야우 왕에 의해 20m로 증축된 후 여러 차례 재건과 증축을 거쳐 현재의 높이에 이르렀다. 파고다를 감싼 금의 무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전해진다. 처음 불탑이 황금못을 입기 시작한 것은 1455~1462년 신소부 여왕이 자신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약 40kg의 금박을 불탑에 입히면서부터다. 이후 역대 왕과 일반인들이 보석과 금을 기부하면서 지금처럼 거대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쉐다곤 파고다의 건립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약 2,600년 전 지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공식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11세기 전후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그동안 1769년의 대지진, 1931년의 큰 화재 등 수많은 자연재해와 제국주의의 약탈 속에서도 미얀마인들이 지켜낸 소중한 문화재임은 분명하다.



소통하는 문화공간

# Healing Movie

잔잔한 여운과 따뜻한 감동을 남기는 영화는 메말랐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생각을 환기시킨다. 잊고 있던 마음의 여유를 찾아줄 흥미롭고 감동적인 영화를 소개한다.



## 밀수

개봉 2023.07.26. | 감독 류승완  
출연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등

"던지고 건지고 속여라!"

1970년대의 작은 어촌 도시 군천에 화학공장이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해녀들. 바다에 물건을 던지고 세관의 눈을 피해 건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밀수의 세계를 알게 된 해녀들은 두려움 반 의구심 반으로 해양 밀수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고 사람들은 서로를 속고 속이며 거대한 밀수판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기 시작한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물길을 아는 자가 돈길의 주인이 된다! 해양 밀수라는 참신한 소재에 류승완 감독만의 시선이 더해져, 바다와 도시를 오가는 여름 영화 특유의 시원한 감성까지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 조디악

개봉 2023.07.12. | 감독 데이빗 핀처  
출연 제이크 질렌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크 러팔로

"너희들은 나를 잡지 못한다."

1969년 8월 1일, 샌프란시스코의 3대 신문사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된다. 이 편지에는 얼마 전 일어난 두 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었고, 편지에 적힌 단서들은 사건을 조사한 사람 혹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범인이 자신의 별명을 '조디악'이라고 밝히자 그를 '조디악 킬러'라고 명명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범인의 편지와 협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는 말 그대로 공포에 싸인 도시로 변한다. 모방범죄가 전국에서 속출했고 유력 용의자는 거리를 활보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디악의 존재마저 잊기 시작했다. 그러나 처음 암호를 해독한 그 레이시미스는 범인의 추격을 포기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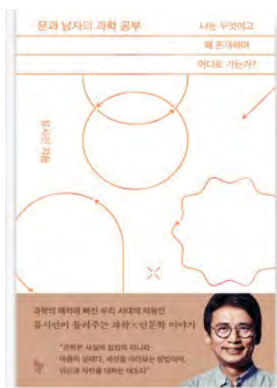


소통하는 문화공간

# Healing Book



하루하루를 책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읽을 만한 베스트셀러를 소개한다.  
 ※ 베스트셀러 순위는 '알라딘'의 2023년 7월 1주 판매량과 주문 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1

유시민 | 돌베개 | 17,500원

문과와 이과는 그간 한국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드높은 문턱으로 존재했다. 문과적 지식인의 선봉장 유시민은 이 문턱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번 책에서 그는 <코스모스>, <이기적 유전자>, <침묵의 봄>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과학 교양 도서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갈래로 풀어낸다. 저자는 현재 인문학이 맞닥뜨린 위기와 한계를 뚫고 나아가려면 과학의 성취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책을 통해 인문학은 과학으로 정확해지고, 과학은 인문학으로 깊어진다.



## 최소한의 한국사

2

최태성 | 프런트페이지 | 18,000원

'외워야 할 것이 많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한국사 공부, 한 권으로 쉽게 끝낼 수는 없을까?' 이 물음에 대한민국 대표 역사 강사 최태성이 한 권의 책으로 응답했다. 이 책에는 고조선이 건국된 기원전 2333년부터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2000년까지, 반만년 역사를 단숨에 이해할 수 있게 엄선해 담았다. 이제 연도와 사건을 외워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아도 된다. 재미와 의미로 가득한 5천 년 우리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친절한 안내서를 만나보자.



## 꿀벌의 예언 1, 2

3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전미연 옮김 | 열린책들 | 각 16,800원

2047년 7월 꿀벌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2053년 12월 인류는 제3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다. 꿀벌이 사라지면서 급감한 식량 생산과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류 역시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점차 심화되는 분쟁과 갈등은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핵전쟁으로 이어졌다. 절망적인 미래를 알게 된 르네는 인류 종말을 막을 희망이 담긴 <꿀벌의 예언>이라는 예언서를 찾아 전생의 자신을 찾아간다. 1천 년 전 예언서에 숨겨진 꿀벌의 비밀을 찾아, 인류는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 따뜻한 자본주의 경영을 향해

# ESG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일컫는다. 단기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를 넘어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경영 방식이다. 아직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ESG는 생각보다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과거 기업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는지를 중심으로 한 재무적 정량지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변화나 인권문제 등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며 비재무적인 지표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평가에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 되는 추세다. 투자자나 소비자들도 돈 잘 버는 기업을 최고로 여겼던 과거와는 달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무게추를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라는 용어는 2004년 UN 글로벌 콤팩트(UNGC)가 발표한 ‘Who Cares Win’이라는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2006년 국제 투자기관 연합인 UN PRI가 금융 투자 원칙으로 ESG를 강조하면서 오늘날 ESG의 초석을 제시하였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기후변화, 환경보호 등 ES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에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ESG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영 가치를 새로이 구축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ESG 경영 우수 기업이 높은 재무적 성과를 보인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도 나왔다. 옥스퍼드 대학과 Arabesque Partners가 ‘ESG와 경영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47개 중 41개(87.2%)가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도 이 흐름에 걸맞게 변화하고 있다. 나쁜 기업의 제품은 외면하고, 다소 가격이 높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는 식이다. 2021년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환경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소비라면 조금 더 비싼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68%에 이르렀으며, 사회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제품 불매 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도 절반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이나 유럽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ESG 경영에 부진한 투자 성과를 보인다. 우리나라도 ESG 정보공개 확대, 평가체계 개선, 책임투자 문화 활성화 등 ESG 경영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이 확립되면 앞으로 ESG 경영 성과가 기업 가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쉽게 알아보는 '만 나이 통일법'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이 일원화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나이 앞에 '만'이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된다. 아직은 헷갈리는 '만 나이 통일법',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 꿀팁을 소개한다.

## '만 나이' 계산 공식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나이가 더해진다. 기존처럼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을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생일에 맞춰 1살씩 더하면 된다.

(공식)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연도-출생연도-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연도-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이번 법령을 통해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 나이가 달라진 친구들 사이의 호칭

만 나이를 사용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앞으로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짐에 따라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칠순, 팔순 등 기념일 계산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이나 팔순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이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만 나이 계산법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의 기념일 계산법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취학 의무 연령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므로 종전과 달라지는 점은 없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 실전편 "이럴 때는 무슨 나이를 쓰나요?"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보면?	만 나이
의약품 복용지도 기준 나이는?	만 나이
담배 및 주류 구매는?	예외(2004년생부터)
병역 의무는?	예외(2004년생 병역판정검사)



## 마음도 충전이 필요할 때, 휴식의 기술

무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처지기 쉬운 요즘이다. 지친 일상 속 틈틈이 휴식시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만 염두에 두면 훨씬 효과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작은 실천으로도 일상에 큰 힘이 되는 마음 충전 기술을 알아보자.

# 일상 속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 일상 속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일상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나쁜 감정에 휩싸여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 누구나 겪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는 우선 나쁜 감정에서 탈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법은 간단하다.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을 찾아보면 된다. 간단한 산책이나 운동도 좋고 웹툰을 보거나 명상에 빠져보는 것도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 뇌에도 쉬이 필요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업무나 학업을 이어 나가다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할 때도 있다. 이는 뇌가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이므로 무시하지 말고 뇌가 쉬 수 있게 해야 한다. 뇌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정보나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것이 필수다. 책상정리나 분리수거 같은 정리정돈을 통해 필요 이상의 시각정보를 없애으로써 뇌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평소 자잘한 의사결정을 많이 해야 한다면, 이를 줄이는 것도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아준다.

### 마음을 변화시키는 영양제 한 알

자도 자도 피곤하거나 일상을 훌쩍 벗어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우리는 마음 어딘가가 허전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때는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 리스트를 작성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세히 적은 후, 일주일에 한 번은 실천까지 이어 나가 보는 것은 어떨까. 마음에도 꾸준히 영양제를 챙겨주다 보면, 평범했던 일상도 어느새 활기로 가득 찰 것이다.



# 꾸덕한 건강 한 스푼 그릭 요거트



## 다이어트와 장 건강에 특효약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 비해 나트륨과 당 성분은 절반 이하로 낮고, 단백질은 1.5배 이상 높게 함유되어 있다. 높은 단백질 함량 덕에 섭취 후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해주고, 폭식을 예방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준다.

장 건강에도 그릭 요거트는 특효약이다. 그릭 요거트에는 장의 전반적인 활동을 돕는 박테리아인 프로바이오틱스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꾸준히 그릭 요거트를 섭취한다면 장 건강 개선은 물론, 면역력 증대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평소에 유당불내증이 걱정인 사람에게도 유당 함유량이 일반 요거트보다 낮은 그릭 요거트를 추천한다.



## 지중해식 식단의 대표 식재료

최근 건강 식재료로 급부상한 그릭 요거트는 지중해 연안 지역인 그리스 등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식품이다. 건강한 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식 식단'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그릭 요거트다. 인공첨가물 없이 우유만을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 오랜 시간 동안 원유를 끓여 농축한 뒤 수분과 유청을 제거했기 때문에 일반 요거트보다 단단한 질감과 신맛을 지닌다. 과일, 빵, 시리얼과 함께 즐긴다면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제격이다.

## 눈과 입이 즐거운 그릭 요거트 바크

**재 료** 그릭 요거트 300g, 키위 2개, 블루베리 1컵, 견과류 1컵

### 조리법

- ① 넓은 쟁반에 종이호일을 깔아준다.
- ② 그릭 요거트를 부어 1~2cm 두께로 넓게 펼쳐준다.
- ③ 각종 과일과 견과류 등 원하는 토핑을 골고루 올린다.
- ④ 쟁반에 랩을 씌운 뒤 냉동실에서 6시간 굳힌다.
- ⑤ 손이나 칼을 이용해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 코스카레터를 읽고...



##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

코스카톡

###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주)부산실업 황서윤 차장  
해진건설(주) 김현주 차장

### (주)삼강기업 박희동 차장



새로운 정보들을 안내해 주셔서 업무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유용한 지식을 알려 주시길 바라며, 더욱 발전하는 코스 카레터  
기대하겠습니다.

### 신현토건(주) 정소은 과장



새롭게 개정되는 법안 및 규정들을 매번 정확하고 쉽게 알려주셔서 실무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시신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문화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Q

2023. 5. 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기준(자본금, 기술자)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  
였습니다.

기존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자본금, 기술자)는 건설업 추가 등록 또는 2개 이상의  
건설업 등록시 1회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것이 어떻게 확대되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응모기간: 2023. 8. 31. (목)까지** 하시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정답자에 한해 추첨 증명)

# 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

## ※ 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

- ✓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온라인 중개 플랫폼 이용시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무등록업자 시공의 문제점



- ✓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는 계약이행/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계약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적정시공이 보장됩니다.

## 🔍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 방법

### PC로 확인하는 방법



- ① [www.kiscon.net] 접속
- ②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

###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



- ①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
- ② '키스콘'으로 앱 검색
- ③ 'KISCON' 앱 설치 및 실행
- ④ '건설업체 파인더'에서 확인

**무등록업자가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향령대로30번길 30, 4층(범천동, 전문건설회관)

Tel. 051-633-0260 Fax. 051-633-0261

[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